

## 치유적 미술감상 활동의 의의와 실제

김 은 진\*

### 〈 초 록 〉

본 연구는 미술 감상의 치유적 가능성을 이론적 고찰과 실제적 적용을 통해 탐색하면서 그 의의와 적용 가능성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미술 감상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미술 감상 과정에서 몰입과 창의성, 자아성장이라는 치유적 요소를 탐색할 수 있었으며, 이때 지식보다 체험으로서의 감상에 의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치유적 미술감상 교육방안을 수립하였다. 그것은 첫째, 감상자는 여러 작품 중 한 작품을 선택한다. 둘째, 감상자는 충분한 시간 동안 그 작품을 감상한다. 셋째, 미술작품에 대한 감상자의 내적 반응을 표현하고, 넷째, 그것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 한다 이다. 치유적 미술감상 활동의 실제적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성인 남녀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참여자들은 작가와 미술작품에 자신의 내면을 투영하고 미술작품에 대한 반응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탐색하고 통찰하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상황과 작가를 연결하며 인식을 확장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작가의 삶과 작품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 치유적 미술감상은 아직 미술교육학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념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술교육학계에는 성인 미술 감상교육 뿐 아니라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자기탐색의 새로운 방법으로 제안될 수 있으며,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미술감상을 통해 창의력과 미적감수성을 키우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술 치료학계에도 미술감상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구체적 방법으로 치유적 미술감상방법이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key words): 미술감상 (art appreciation), 치유 (healing), 미술감상 활동 (the art appreciation activity)

### I. 서론

미술작품은 미술가의 삶의 이야기 이다. 또한 미술작품은 인간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미술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미술가의 삶을 통해 인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만 미처

\* 본 학회의 회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eunjin49.Kim@gmail.com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미술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곤 한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내적 욕구와 갈등을 마주하고 또 화해하도록 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미술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특히 현대 미술은 미술사적 맥락과 현대미술의 개념을 알지 못하면 감상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미술 감상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거나 어렵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리감을 갖기도 한다. 미술감상이 전문적이고 많은 지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어질 경우, 미술감상의 치유적인 역할은 한계를 갖는 것 같다. 여기서 다루고자하는 ‘치유적 미술감상’은 미술감상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내면적 치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미술사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미술감상과 구분되어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미술감상이 현대인에게 치유적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견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최승이, 2013; Andre, 2013). 그러나 아직까지 미술 감상의 치유적 기능과 그 가능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탐색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미술 감상이 치유적일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도, 무엇이 치유적인가? 어떻게 하면 더 치유적으로 경험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명쾌한 답을 구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미술감상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그 치유적 잠재력을 탐색하고 치유적 미술감상의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치유적 미술감상 활동 방안을 수립하고, 실제적으로 예술작품과 자신의 삶을 통찰하고 설명할 수 있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치유적 미술감상 활동을 실시하여, 그 치유적 가능성과 그 구체적인 방법을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Ⅱ. 미술감상의 치유적 잠재력

### 1. 미술감상의 의미

미술 감상은 미적 대상에서 미적 가치를 느끼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내면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류재만, 2004). 그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세계미술사전』에서는 예술작품의 전체에서 미를 향수하지만 단지 지적·분석적 이해와 개인의 ‘좋고, 싫음’의

정서적 반응과는 구별하여 작품을 적극적으로 음미하는 평가 활동이 가해지는 것이라 하였다. 본래 '감상', 'appreciation'은 라틴어의 'appreciatus'에서 온 용어로 'appraise' 즉 품질, 크기, 무게 등을 '평가하다'와 '감정하다', '사정하다', '값을 매기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예술작품의 의미와 질, 그리고 가치를 평가하는 의미를 포함한다(박휘락, 2003).

미술비평은 미적 대상의 분석을 통해 미적 가치 판단에 무게를 둔다면, 미술감상은 미적 대상을 통하여 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면화하는데 중점을 둔다(류재만, 2004). 그러나 미술 비평에 앞서 미술 감상이 선행되어 일어나는 순환적 관계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미술비평이 미술작품에 타당한 근거를 들어 타인 또는 사회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설득하려는 의도를 갖는다면, 미술 감상은 작품을 매개로 작가의 삶과 대화하고 음미하면서 감상자 자신의 존재와 삶의 방식을 스스로 묻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감상은 단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미적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가치 인식으로, 예술작품에 깊숙하게 몰입한 창작의 결과로 나타난 형상을 추상상(追想像), 추체험(追體驗)하는 감각적 세계를 초월하는 추창조(追創造)의 정신작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추창조(追體驗)로서의 활동은 일종의 몰아(沒我)의 경지로 작품이 거기 있고, 내가 여기 있다는 구분 의식 없이 정신적으로 일체되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복잡하고 정교한 쾌감은 인간 특유의 정신 작용이며, 감상은 이러한 쾌감을 초월하여 자기 형성을 위한 창조 작용이라는 데 의의를 지닌다(박휘락, 2003).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창조주의 미술교육으로 유명한 로웬펠드는 미술 감상을 위해 어린이는 작품과 동일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어린이가 작품과 동일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작품에서 나타난 다양한 표현 방법에 '생명'을 부여하고,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쉽고 재미있게 어린이들은 창의적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감상과 창의성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Lowenfeld & Brittain, 2002).

최근 학자들은 미술 감상에서 지적 이해를 넘어선 창조적 활동으로서의 가치를 중요하게 다룬다. 이러한 견해는 작품의 가치가 작품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감상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늘 새롭게 재생산된다는 현상학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입장과 일치한다. 즉 예술작품의 의미 구성에서 작품과 상호작용하는 감상자의 능동적 역할을 그 중심에 두는 것을 강조한다(박휘락, 2003).

미술감상은 단순히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으며 감상자의 내면화 능력을 기반으로 창조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동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 2. ‘보는 것’과 몰입, 창의성, 자아성장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본다고 생각하지만 대상을 보기 보다는 대상에 대한 개념이나 인상을 본다.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혼동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보는 것’과 관련하여 인간의 대뇌 반구가 가지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은 심리생물학자인 스페리의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에 이르는 선구적 작업을 통해 알려졌다. 미국의 미술교육자로 알려진 Betty Edwards는 학생들에게 시각적 사고방법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뇌과학이 밝혀놓은 두 가지 사고 유형, 즉 L-모드<sup>1)</sup>와 R-모드<sup>2)</sup>로 ‘보는 것’ 것이 전혀 다른 방식임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Edwards, 1979).

L-모드의 사고 유형은 선(線)적이며, 논리적, 언어에 기초한 사고로 복잡한 것을 간단명료한 단어나 상징, 추상으로 해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고 유형은 인간 뇌 발달에서 비교적 후기에 발달한 기능으로 현대적 삶의 복잡 한 국면에 대체하는데 유용하다.

이에 비해 R-모드는 시각적, 공간적, 연상적 사고를 하며, 전체를 한꺼번에 보며, 부분들 간의 관계를 전체로 통합하는 방식을 찾으려고 시도 한다. R-모드는 뇌 발달에서 언어 이전에 발전한 사고 유형으로 자연 상태에 생존해야하는 인류에게 자연의 총체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여 생존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방식이다.

미술을 감상할 때도 서로 다른 두 가지 사고 유형이 작동한다. 미술작품과 마주했을 때 L-모드는 작가가 누구인가? 미술사조가 무엇인가?, 제목이 무엇인가? 등과 같이 언어적 사실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이것을 지식적인 개념을 다 알고 난 후에는 미술작품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느끼며, 더 이상 미술작품을 관찰하지 않으려 한다. 그에 반해 R-모드는 그림 안에 세밀한 부분과 전체적 조화를 느끼고, 작품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통찰을 이끌어 내려고 한다. R-모드로 미술작품을 감상하게 되면 시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마치 작품과 내가 하나라는 느낌 즉 ‘몰입’과 유사한 경험이 이루어진다. 한 사람에게 공존하는 두 가지 사고 유형은 서로 경쟁적이며, 한 편으로 협조적으로 작동한다.

Edwards는 서구문명사회가 논리적이고 단순 명료한 L-모드를 선호하여, 상대적으

1) Left-Mode의 의미로 왼쪽 뇌의 특성을 주로 활용하는 사고 유형을 의미한다.

2) Right-Mode의 의미로 오른쪽 뇌의 특성을 주로 활용하는 사고 유형을 의미한다.

로 R-모드 방식을 억압하는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R-모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 밖에 모든 음악, 문학, 무용 및 창조적 활동에서 R-모드의 활용은 유용하며, 이것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개발하는데 깊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많은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보는 것’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몰입이라는 만족감과 함께 창의성이 개발되고 자아의 성장까지 이루어지는 경험을 보고 하였다.

‘보는 것’과 창조성 그리고 자아성장에 대한 경험은 미국 무용치료의 선구자 중 하나인 U.C.L.A.의 무용과 교수 알마 Alma M. Hawkins의 경험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녀는 ‘보는 것’이 상상의 과정을 유발시키는 주요한 자원이라고 하였다. “창조적인 인간은 개방성을 지니고, 사물과 대면하여 반응할 수 있고, 특정한 경험에 깊이 몰입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관찰자가 관찰되어지는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과 같다. 집중을 하고 있는 시기 동안 우리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각각을 볼 수 있다.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다. 이 때 필요한 것은 마주하는 대상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표면 속을 들여다 볼 수 있고, 사물이나 사건의 특정한 요소, 관계, 잠재적 속성을 알아내는 능력은 학생 스스로 반응하고, 탐구하는 내부충동력을 제공해 주었다고 회고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내부에 독특한 목소리를 발견했을 때 자유로워지고, 신비한 무엇인가가 창조자에게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인정받고 타인으로부터 가치를 부여 받을 때 더욱 분명해지는데 학생들에게 자아에 대한 확신, 더 큰 모험을 무릅쓰는 자발성이 생겨난다고 하였다. 여기서 Hawkins는 예술이 오랫동안 표현과 전달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어져 왔으나 예술과 창조과정의 자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해왔다고 하면서, 예술과 창의성, 자아성장의 관계를 설명하였다(Hawkins, 1991).

Hawkins가 말한 ‘마치 관찰자가 관찰되어지는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과 같다’는 의미는 앞에서 미술 감상에 대해 박휘락이 ‘추창조(追創造)로서의 활동으로 일종의 몰아(沒我)의 경지로 작품과 나의 구분이 없이 정신적으로 일체되는 경지’라고 표현한 부분과 관련지어 생각 할 수 있다. 또한 Hawkins와 Edwards의 경험 속에서, ‘보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경험 ‘몰입’을 유발시킨다는 것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게 한다. 즉 사람들은 ‘보는 것’을 통해 관찰되어지는 대상과 일체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창의적 활동이 촉진되면, 이러한 창의성의 특별한 경험은 개인의 자아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 3. 미술감상의 치유력에 관한 선행연구

미술감상을 할 수 있는 미술관을 치료적 장소로 활용한 연구로 Carolyn Brown Treadon과 그의 동료들은 중학생들이 미술관에서 미술 감상을 통해 가족에 대한 지각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미술작품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정신적·심리적·영적 상태를 투사하고 그것을 심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와 작품에 자신에 대한 삶을 연결하여 통찰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여기에서 참가자들은 미술관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풍부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현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Treadon, Rosal & Wylder, 2006).

미술 감상과 관련하여 치유적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학자로 Leuteritz는 1997년 그의 저서에서 “예술을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대면하는 것도 미술치료의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론가이자 미술치료사인 정여주는 “예술은 예술가와 예술작품과 예술감상자 사이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 창의적 작업을 이루어 내는 예술가 뿐 아니라, 예술을 수용하는 감상자도 예술가의 심리적, 정신적 영적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와 대화하는 소위 말하는 ‘훌륭한 창의적 생산’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녀는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환자에게 예술작품을 내적으로 재창조하는 것이며, 환자는 그림을 감상함으로써 심리적, 정신적 이완을 하게 되고, 나아가 마음의 고요와 평화 뿐 만 아니라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정여주, 2007).

미술 감상을 치료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독일의 병원의사인 Ott박사는 1997년 그의 저서에서 병실, 응급실, 중환자실, 복도, 휴게실 등에 의도적으로 그림들을 걸어두어, 환자와 병원 종사들끼리 그림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극을 주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무엇보다 미술 작품을 통하여 환자들의 고통을 약화시키거나 환자가 치유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우선적 목적으로 두었다(정여주, 2007).

Franses F. Kaplan과 같은 미술치료 이론가들은 미술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진화 심리학에서 찾으려고 시도한다. 그녀는 진화 심리학자 Ellen Dissanayake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현대인의 정신적 고통은 수십만년 동안 수렵목축을 하면서 진화해온 인류가 최근에 발달한 문명사회에 부적응하면서 생겨난 질병이라는 주장을 인용하였다. 즉 생존을 위해 충분히 발휘하도록 프로그램된 능력을 현대생활에서 충분히 사용할 기회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삶에서 활력과 생기를 잃어간다는 것이다(Kaplan, 2000). 모든 유기체는 생존을 위한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즐거움이라는 보상체제를 발달시킨

다. 음악, 무용, 미술과 같은 예술은 인류가 자연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전략적 능력으로 모든 인간에게 선형적으로 획득되어 있는 능력이다. 카프란은 정신적 고통을 받는 현대인에게 이러한 예술적 활동을 충분히 즐기게 하는 것으로 내재된 생존 능력을 일깨우고 즐거움과 활기를 되찾게 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예술의 치유적 기능을 강조한다(김은진, 2015).

미술 감상에서 시지각을 통하여 시각적 산물인 미술작품으로부터 비언어적 정보를 받아들이고 소통하는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된 잠재능력을 활용하도록 한다. 내면에서 생성되는 느낌과 이미지에 집중했을 때 작품과 일체되는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 ‘몰입’으로 체험되는 즐거움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더욱 깊이 있는 작품과의 교감을 이끌어 내어 만족감으로 경험된다. 앞에서 살펴본 선구적 연구자들의 견해와 사례들은 미술작품을 바라보게 하고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이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미술 감상의 치유적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음악, 무용, 미술과 같은 비언어적 예술활동은 인간의 근원적인 즐거움을 경험시키고,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며, 자신의 존재를 확신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미술 감상은 미술작품에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투사하고, 고통을 다룰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한다.

#### 4. 치유적 미술감상의 의의

‘미술 감상’은 미술작품의 감각적인 형식과 정신적인 내용을 즐기는 미적 체험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미술 감상은 미술작품에 대한 지식적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림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의미는 미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이 미술 감상을 할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한다는 뜻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안다는 것’이 ‘몰입’과 같은 실제적인 체험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견해도 있다.

미술감상에 대한 설명으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은 정교하고 정확한 지식을 통해 미술작품을 보고 상상할 수 있는 재료를 많이 얻을수록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라 하겠다. 즉 미술작품에 대한 아무런 개념도 갖고 있지 않을 때보다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면에서 더 많은 상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치유적 미술 감상’은 이것과는 구별되어 이해될 필요가 있다. 상처받은 자아를 만나고 자신의 삶을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상상력의 재원은 자신의 내부에 있다. 이 때 미술에 대한 지식은 절대적인 요소가 되지 못한다. 감각체계로 습득된 경험이 다시 감

각체계를 이용한 창조적 활동으로 표현될 때 언어적인 지식이 끼어들 틈은 사라진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주의 집중을 통해 정교해지고, 분류할 수 있게 되고, 회상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보는 것’에 대한 체험이다. 감상자들은 예술가에 의해 인간의 보편적 삶을 시각적으로 담아낸 작품에 집중하여 자신의 내면에서 떠오르는 느낌과 이미지를 조합하여 의미를 재창조해내는 과정에서 ‘몰입’과 ‘창의적 체험’을 경험하고, 만족스러운 내면적인 감상을 경험할 수 있다.

사실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미술 감상과 체험적 미술 감상 방법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언제나 올바르지 못한 설명일 수 있다. 어떤 경우도 지식만을 가지고 미술 감상을 할 수 없다(박휘락, 2003). 누구라도 미술작품에서 체험을 배제하고 이루어지는 감상은 감상일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치유적 미술 감상’은 작품의 시각 이미지에 집중하여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는 체험적 측면을 강조하며 몰입과 창의적 체험을 통해 자아성장을 도모하는 감상 방법이라 하겠다.

미술 감상의 체험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전문가, 예술가들이 입을 모아 주장하지만, 아직도 우리 교육 현장에서나 일반인들에게 미술 감상은 지식 전달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치유적 미술 감상’은 미술 감상의 실천적 방법으로 제안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 Ⅲ. 치유적 미술감상 교육의 실제

#### 1. 치유적 미술감상 활동방안

치유적 미술감상은 감상자의 창의적 체험을 강조한다. 이것은 예술가에 의해 시각적으로 표현된 미술작품을 감상자가 시각적 감각체계를 이용해 특정한 요소와 관계, 잠재적 속성을 알아내며 그것에 반응하고, 자신의 내부의 자신만의 반응을 발견하도록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언제나 이러한 감상의 체험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늘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이미지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TV 광고나 인터넷홍보 등의 대중매체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에게 미술작품은 지루하고 흥미 없는 대상이기 쉬우며 집중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치유적 미술감상 교육을 위해서는 감상자가 미술작품을 보았을 때 일어나는 내면의 미묘한 반응을 인식할 수 있는 민감성을 갖게 하고, 작품과 자신의 관계를 창조적으

로 찾고 명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집중하는 시간을 유도하며, 자신의 반응을 표현하여 타인으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상자들로 하여금 미술작품의 시각 이미지에 집중하여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면서 몰입과 창의적 체험, 자아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치유적 미술감상의 활동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감상자에게 여러 작품 중에 자신이 감상할 한 작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감상자는 여러 작품 중 단 한 작품을 선택하기 위해 나머지 작품들을 모두 주의 깊게 보게 되며, 서로 비교해 보는 가운데 작품에 따른 감정과 생각의 변화에 민감하게 주목하게 된다.

둘째, 감상자에게 선택한 한 작품을 깊이 감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한다. 이 때 작품은 감상자의 무의식적인 생각과 감정을 이끌어 내는 이미지 자극이 된다. 감상자는 작품에 대한 추창조과정을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명료화하게 된다.

셋째, 감상자에게 작품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이 때 그림을 잘 그리려는 의도 보다 작품으로부터 받은 느낌을 충분히 전달되도록 표현하는 것을 강조 한다. 단순히 색, 또는 선이나 형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반응을 쉽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감을 갖게 한다.

넷째, 감상자에게 자신의 반응 작업에 대해 설명하게 한다. 이 때 모호한 내용이나 와 닿지 않는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감상자는 자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 2. 치유적 미술감상 활동 사례

### 1) 참여자 선정 및 진행 절차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삶과 예술가의 삶을 연결 짓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통찰력과 언어표현 능력을 가진 대상을 얻기 위해 성인을 참여자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자신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변화시키길 원하며, 이를 위해 미술과 같은 예술적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을 공개 모집하여 4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미술작품을 감상한 후 자신의 표현 작업을 이야기하고 깊이 있게 공감하며 대화하기에 4명의 인원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졌다. 또한 도판이나 슬라이드 보다 직접 갤러리에서 작품을 보고 감상하도록 하여 개별적인 작품 선택의 기회와 깊

이 있는 감상 기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정된 오은수 작가의 “방, The Room”展은 방(room)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만나는 다양한 내면의 얼굴들을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어 참여자로 하여금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적절할 미술작품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2015년 7월 16일 종로구에 위치한 학아재 갤러리에서 대학생과 직장인으로 구성된 성인 남녀 4명(남 1명, 여 3명, 28세 ~ 58세)을 대상으로 갤러리에서 전시 중인 오은수 작가의 ‘방 The Room’展의 출품된 작품을 중심으로 치유적 미술감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대학생 2명과 직장인 1명, 전문직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미술과는 관련 없는 전공과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프로그램 진행은 오리엔테이션, 작품 감상, 반응 작업, 이야기 나누기로 구성되었으며 총 소요 시간은 약 120분이었다.

반응작업을 위해 준비한 재료는 8절 도화지, 16절 도화지, 수채물감, 오일파스텔, 파스텔, 칼러마커, 색연필 등이었다. 도화지의 두 개의 크기로 준비한 것은 자신의 내면에 대한 반응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다양한 채색도구는 가장 유동적인 수채화, 그 보다는 좀 더 견고한 파스텔, 오일파스텔, 색연필, 칼러마커 순으로 준비하여 참여자들의 반응을 세밀하게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은 먼저 전시 중인 전체 작품을 둘러 본 후, 하나의 작품을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였으며,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았다. 표현이 끝난 후 그 표현에 대한 제목을 적도록 하였다. 이 때, 오리엔테이션에서 제안된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자신만의 속도로 전시된 작품을 하나 하나 보세요.

둘째, 작품 중 가장 자신에게 가장 큰 소리로 다가오는 하나의 작품을 선택하세요.

셋째, 선택한 작품을 충분히 오랜 시간 바라보세요. 충분한 시간이란 그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선명해 질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넷째, 작품을 보면서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해 주세요. 이때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 그 느낌을 전달하는 것에 집중해 주세요. 한 가지의 색 또는 선이나 형태만을 이용해서 표현해도 됩니다.

이 때, 진행자는 참여자들에게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며, 자신의 속도로,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선택하고, 자신이 필요한 시간만큼 감상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할 것을 강조하면서 참여자들의 자기 민감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2) 결과

참여자들은 오리엔테이션에서 미술 감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만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치유적 미술감상을 위한 활동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받았다. 아울러 준비된 (수채화, 파스텔, 오일파스텔, 색연필, 컬러마커 등) 다양한 미술재료의 특징에 대해 하나씩 설명을 들었다.

그들은 처음 미술작품을 감상하기 시작했을 때는 익숙하지 않고 어색해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약 5분이 지나면서 감상에 집중하기 시작했으며, 점차 한 작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갔다. 그리고 약 20여분이 지난 후 개별적으로 다양한 채색용구를 이용해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참여자 C(여, 52세)는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였지만 모두 반응작업에 몰입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대부분 미술작품에 대한 자신들의 반응을 표현할 것을 진행자에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작품과 자신의 관계를 표현하였다.



<그림 1> 여러 가지 모습이고 다르지만 결국은 나.  
(참여자 A. 도화지 16절, 파스텔, 칼라마커)



<그림 2> 얼굴들  
(작가 작품, 캔드지, 연필)

참여자 A(여, 36)은 자신이 선택한 작가의 작품(그림 1)에 대해 좀 무섭게 볼 수도 있지만 자신은 별로 무섭지 않다고 하면서 자신을 닮았다고 하였다. 자신의 표현(그림 2)에 대해 겉에는 좀 강한 라인이 있지만 안에는 따뜻한 색이고 여러 가지 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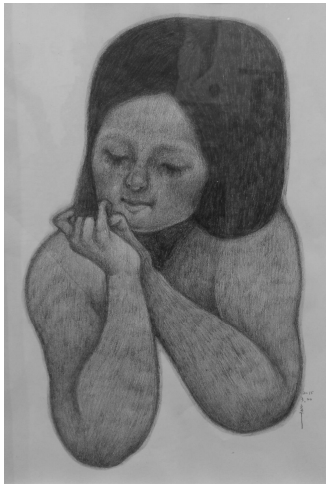
있으며, 이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은 어렸을 때의 나, 더 이상 내가 아닌 나를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참여자 A는 미술작품(그림 1)과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따뜻한 내면이 있는 자신을 연결 지었다. 그녀는 반응작업(그림 2)에서 실재 작가 작품에는 없는 색채를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각각의 동그라미 속에 빨강, 녹색, 파랑, 갈색의 진한 선을 그려 넣어 자신의 개성을 표현했다. 그리고 자신의 다양한 내면의 얼굴을 6개의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색채의 동그라미와 동떨어져 있는 검은색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로 구체화하여 보여주었다. 연결된 6개의 동그라미로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였고,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동그라미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얼굴을 표현하였다.

(그림 1을 가리키며) 저런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 속에는 따뜻한 색을 줌... 봤어요. 저는 동글 동글 좀 따뜻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했어요. 겉에는 좀 강한 라인이 있지만... 안에는 따뜻한 색이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또 진한 나만의 고집 그런 나만의 모습이고.. 이들 간에는 교집합이 있어요. 제가 남들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면들도 서로 붙어 있어요. 붙어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서로 붙어 있어요. 여기 떨어져 있는 것들도 있는데 더 이상 내가 아닌.. 어렸을 때 나 또는 더 이상 내가 아닌 더 이상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아닌 나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각이져 있는데 고집이 센 모습이에요. 저도 좀 그런게 있어서 저와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안에 진한 색은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저를 많이 이입을 시킨 거 같아요. 여러 가지 모습이고 다르지만 결국은 나... (참여자 A)



<그림 3> 소중한고 둥근 나  
(참여자 B, 도화지 16절, 파스텔, 수채화)

참여자 B(여, 27세)는 전체 전시를 보고 “전체적으로 둥글다. 엄마와 같은 것들을 떠올랐다”라고 하였다. 그녀는 함께 전시되어 있는 작가의 노트를 통해 작가가 고민이 많고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데 그것을 작품으로 표현한 것 같다고 하였다. 작품들을 자신과 연결해 보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그녀는 “소중하고 둥근 나”라는 제목의 반응 작업을 하였다. 참여자 B가 그린 그림의 화면 가운데 웃고 있는 얼굴은 붉은 색과 주홍색, 노란색의 아우라로 싸여 있다. 참여자는 전시의 침울하고 피기스럽기까지 어두운 톤과 전혀 다른 밝은 색을 통해 작가의 삶까지 더 밝고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시키고 싶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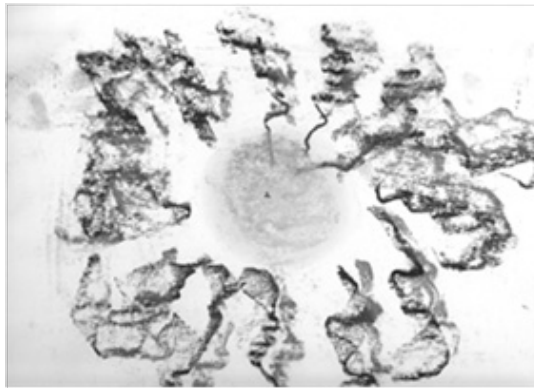
<그림 4> 여자아이  
(작가작품, 캔트지, 연필)



<그림 5> 알고 찾고 가다  
(참여자 C, 도화지 16절, 파스텔, 오일파스텔)

다른 참여자들은 참여자 C(여, 53세)의 반응 작품을 보고, 참여자D는 차가움이 느껴진다고 하였으며, 참여자B는 차갑지만 머리와 가슴은 따뜻해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참여자A는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잘 안 풀리는 것 같다고 하였다. 참여자 C는 무언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답답한 것... 하지만 희망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것이 표현된 것 같다고 하였다. 특히 작가의 작품 속 인물도 입은 웃는데 입꼬리는 무언가 시무룩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참여자 C는 참여자 중 가장 연장자이면서 의료업계에 전문직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참여자들의 반응을 들으면서 자신의 상태를 읽어 주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화면 가득히 채우고 있는 여성의 모습은 차분하고 이지적인 참여자 C와 닮아 있었다. 평온하게 감은 눈과 앞으로 모은 두 손은 성모상처럼 평화롭게 보여진다. 하지만 밖에 칠해서 초록색과 인물을 둘러싼 선들 속에서 보호받고 싶으며 휴식하고 싶다는 욕망을 엿볼 수 있다.



<그림 6> 깊이 있는 용기  
(참여자 D, 도화지 8절, 파스텔)

참여자 D(남, 25세)는 작가가 어려운 상황을 바꿔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쉽지 않을 것 같이 보인다고 하였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못하는 친구를 떠올렸다고 하면서, 현재 상황을 극복하려고 시도하는 점에서 자신과도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는 마음의 트라우마를 극복해 보려는 노력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였다.

#### 깊이 있는 용기

마음 깊은 트라우마에서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여보려는 노력  
너덜너덜할 만큼 상처 입은 상황을 의식적으로나마 바꿔보려는 마음,  
그 용기. (참여자 D의 詩)

참여자 4명은 모두 미술작품을 보고 난 후 자신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자신의 그림 속에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그 그림 속에는 그들의 현재의 상황 또는 자신에 대한 태도를 읽어 낼 수 있었다. 서로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 하고 타인의

작품에 대해 받은 느낌과 생각을 나누면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작품 속에 자신의 모습이 담겨졌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치유적 미술감상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참여자들은 작품을 통해 작가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체화하였다. 둘째, 미술작품에 대한 반응을 표현한 그림에서 참여자 자신의 특성을 담아냈으며 그것을 타인과 공유하는 경험을 하였다. 셋째, 미술작품은 감상자 뿐 아니라 주변의 친구가 놓인 상황을 떠오르게 하였으며 간접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인식도 함께 하도록 하였다. 넷째, 사전에 작가에 대한 어떠한 이해와 지식 없이 작품 감상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작가의 삶과 작품에 대한 이해도 함께 가질 수 있었다.

#### IV. 결론

치유적 미술감상 활동은 미술작품을 지식으로 이해하기 이전에 신체감각을 이용해 ‘보는 것’으로, 작품에 대한 통찰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인간의 감수성을 높일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미술감상의 치유적 가능성을 탐색하였으며, 구체적인 교육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기반으로 치유적 미술감상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감상은 감상자로 하여금 몰입의 만족감, 창조성을 통해 자기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치유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미술감상을 활용한 사례를 문헌을 통해 찾을 수 있었으며, 미술작품을 바라보면서 내담자의 상태를 투사하게 하여 심리적 문제를 다루는 기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치유적 미술감상 활동 방안으로 감상자에게 미술작품을 선택하게 하고, 충분한 시간 집중하게 하며, 작품으로부터 받은 반응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하고 이야기 하게 하도록 하였다.

넷째, 치유적 미술감상은 성인들에게 미술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작품을 감상

하고 작품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인식까지 높여 주었다.

치유적 미술 감상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와 실제적 적용 사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인간 형성에 예술이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치유적 미술 감상은 더 깊이 있는 철학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아울러 성인 뿐 아니라 학령기의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미술감상을 통한 치유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마련하는 연구가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성인 뿐 아니라 학령기 학생들에게 미술감상을 좀 더 쉽고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며, 미술작품을 통해 인간과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서적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자아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술치료학계에도 미술치료의 미술감상을 통한 미술치료의 구체적인 도구로 치유적 미술 감상법이 제안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 【참고문헌】

- 김은진(2015). 소진을 보고하는 미술치료사의 미술관 체험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류재만(2004). **초등 미술과 교수법**. 서울: 교육과학사.
- 박휘락(2003). **미술감상과 미술비평 교육**. 서울: 시공아트.
- 정여주(2007). **미술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최승이(2013). **힐링 미술관**. 서울: 포이에마.
- Lowenfeld, V. & Brittain, W. (2002).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 연구회 역). 서울 : 미진사. (원서 출처 1947).
- Andre, C. (2013). **마음 미술관**(이세진 역). 서울: 김영사.(원서 출처 2011).
- Edwards, B. (1979). *The New Drawing on the Right Side of the Brain*. Jeremy P. Tarcher/Putnam.
- Hawkins, A. M. (1991). *Moving from within: A new method for dance making*. Independent Publishers Group, 814 N. Franklin Street, Chicago, IL 60610.
- Treadon, C. B., Rosal, M., & Wylder, V.D.T.(2006). Opening the doors of art museums for therapeutic processes. *The Arts in Psychotherapy*. 33(4), 288-301.

Kaplan, F.(2000). *Art, Science and Art Therapy*. London and Philadelphia: Jessica Kingsley Publishers.

논문접수 2015년 7월 15일	논문심사 2015년 7월 30일	게재승인 2015년 8월 10일
-------------------	-------------------	-------------------

ABSTRACT

## Study on Significance and Practice of Healing Art Appreciation Activity

Eunjin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significance and applicability of the healing art appreciation by exploring them with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Through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art appreciation, this study was able to explore the healing aspects of it, such as immersion, creativity, and self-development while participants appreciate arts. When those healing aspects happened, the researcher found out that there is more significance on the experience-based art appreciation than the knowledge-based one. Based on the findings, the educational principles of art appreciation were established. First, participants choose one work among many artworks. Second, they spend enough time to appreciate it. Third, they express the inner reaction towards it and lastly, they talk about their thoughts and feelings from it. As a result of conducting the healing art appreciation, based on the principles, by the four adult males and females, the participants projected their inner thoughts into the artist and artworks and expressed their reactions towards the artworks. This allowed the participants to experience self-exploration and self-reflection. In addition, the participants widened their awareness by connecting the surroundings of artists with others' as well as themselves. Finally, they reached the deep understanding of the life and works of the artists. However, more studies should be conducted since the healing art appreciation is not the concept which has been discussed in an art education academia. This study can be suggested as a new method of self-exploration for the adolescents who go through the identity crisis at the art education academia, and furthermore, it can be used to help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develop their creativity and artistic sensibility. Also, it is expected that these healing art appreciation methods could be suggested as specific ways to take care of clients' minds through art appreciation in the art therapy academia.